

도요토미 히데카쓰는 1591년부터 1592년에 사망할 때까지 기후성의 성주였다. 그는 도요토미 히데요시(1537~1598)의 누나의 아들로 오다 노부나가의 조카딸인 오에요(1573~1626)와 결혼했다. 능력이 뛰어난 무장이었던 히데카쓰는 많은 전투에서 명성을 날리며 처음에는 단바 가메 산성(교토부)을, 이어서 고후성(야마나시현)을 하사받았다.

1591년 초, 히데카쓰는 기후성의 성주가 되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불과 1년 후, 히데요시의 명으로 히데카쓰는 기후성의 가신들을 거느리고 조선으로 출병했다가 체류하던 거제도에서 병으로 사망했다. 히데카쓰의 사후, 기후성은 오다 히데노부(1580~1605)가 물려받게 되었다.